

일제강점기 친일 유림 단체 대동사문회 연구*

서 정 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I. 서론

II. 대동사문회의 결성과 구성원

III. 대동사문회의 활동과 사업

IV. 결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논문 요약>

3·1운동에 놀란 일제는 한국의 통치 기초를 바꾸기 시작한다. ‘문화 통치’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보장했다. 특히 단체 설립과 신문·잡지 발행도 활발해졌다.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유림을 친일파로 만드는 작업에 힘을 쏟았다. 조선을 병합하자마자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림 단체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경성과 지방에서 다양한 유림 단체가 결성되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친일 유림 단체인 대동사문회를 연구하되, 이 단체의 결성과 참여 인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동사문회는 문화통치 시기 가장 먼저 결성된 유림 단체이다. 1920년 1월에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대략 5년여 정도 되지만,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친일 유림 단체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하다. 일제에 부역한 조선인들이 많지만, 특히 가장 고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유림 세력의 활동은 대동학회(이후 공자교회), 문예 동호회인 以文會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친일 유림의 계보와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대동사문회에서 초기에 역점을 둔 사업은 현철을 숭상하고 사당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향교재산 환부,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과대학인 大成學院을 설립, 孔夫子 忌辰 40周甲 追慕式 거행 등이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유교부식회 등의 유림 단체의 전모를 조망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대동사문회, 대동사문회보, 친일 유림, 경학원, 유도진흥회.

I. 서론

일제는 강제병합 과정에서 유림들이 자정순국·의병전쟁·애국계몽운동 등을 통해 강하게 저항하자 유림을 친일파로 만드는 작업에 힘을 쏟았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병합하자마자 府令으로 「經學院規程」(1911.6.15.)을 제정하여 성균관을 經學院으로 변경했는데 제향 기능만 남기고 교육 기능을 박탈했다. 그러나 3·1운동에 놀란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는 기초를 바꾸기 시작하고, ‘문화통치’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보장했다. 이때 단체 설립 기준도 완화되어 경성과 지방에서 다양한 유림 단체가 결성되었다.

본고는 문화통치기에 가장 먼저 결성된 친일 유림 단체 대동사문화를 연구하되, 이 단체의 결성과 참여 인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대동사문화는 “儒道の 講明을 목적”으로 1920년 1월 25일에 창립된 친일 유림 단체로, 3~4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그 이후는 두드러지게 활동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²⁾ 일례로 대동사문화의 기관지에 해

1) 대동사문화에 대해서는 鄭旭宰(「한말·일제하 유림 연구: 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논문, 2009)가 1920~1930년대 유림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고찰하면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는 대동사문화의 조직 결성 경위와 핵심 구성원의 이력, 대동사문화의 친일적 성격을 다루었다. 본고는 이 논문을 참고하면서 대동사문화 참여 인력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 상호 조우하고 대동사문화를 결성하게 되었는지와 대동사문화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또한 대동사문화 참여 인력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강명관(「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 『창작과비평』 62, 창작과비평사, 1988, 141~172쪽)과 黃渭周(「日帝強占期 以文會의 結成과 活動」, 『大東漢文學』 33, 대동한문화회, 2010, 243~285쪽)의 논문을 참고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로 친일 행적을 보완했다.

2) 대동사문화와 관련되어 1940년에 여성이 다니는 상업학교 신설을 추진한 것이 보이는데, 본회의 활동은 1940년, 지회의 활동은 1944년 무렵이 마지

당하는 『大東斯文會報』는 제1호(1920.04.30.)와 제2호(1922.10.24.)의 발행 주기가 길고 일정하지도 않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한 유도진흥회가 기관지 『儒道』를 15호까지 발행한 것과 견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대동사문회는 1호와 2호는 편집책임자가 다르고, 회장도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어 내부 결속력이 굳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대동사문회는 설립 초기에 향교재산 환부 신청, 공자 서거 2400주년 기념식, 대성학원 설립 등을 주도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여 1920년대 초반 보수 유림 단체의 활동을 살피는 데 유효하다. 또한 대동사문회는 일제에 부역한 유림 세력들이 활동했던 중추원, 대동학회(이후 공자교회), 문예 동호회인 以文會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친일 유림의 계보와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동사문회의 설립과 조직, 초기 활동³⁾을 고찰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유교부식회 등의 유림 단체의 전모를 조망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대동사문회의 결성과 구성원

1. 대동사문회의 설립과 조직

대동사문회는 1919년 12월 5일(음11.23) 오후 4시 종로에 있는 太華館에서 대동사문회 발기회를 개최했다. 洪肯燮이 좌장이 되어 발기회를

막인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大成女商學院-大東斯文會에서 新設」, 『매일신보』 1940. 04.06. 3면; 「儒林國語講習 修了者五百名」, 『매일신보』 1944.01.16. 2면 참조.

3) 대동사문회의 발기회 및 설립, 참여 인원, 추진 정책 등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大東斯文會報』 제1호(1920.04.30.)와 『대동사문회보』 제2호(1922.10.24.)를 주로 이용하되, 회보에 없는 것은 당시에 발행되었던 잡지와 신문을 보조 자료로 삼았다. 또한 주요 연혁은 제2호의 「會中記事・日記抄要」(71~80쪽)를 참고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는다.

주관했고, 李範喆이 대동사문회의 설립 취지를 설명한 후에 발기문을 낭독했다. 발기회에 참여한 사람은 홍궁섭, 鄭萬朝, 沈鍾舜, 李舜夏, 崔永年, 徐相春, 韓晩容, 李琦, 劉秉澈, 魚允迪, 宋之憲, 玄采, 朴魯學, 이범철, 洪憲, 韓敝履, 金正基, 金琪鉉, 睦容讚, 劉載性, 李明宰, 金見圭, 朴相珽, 朴元泰 총 24명이다. 이듬해 1월 25일 오후 1시에 태화관에서 대동사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각 지방 유림 280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친일 유림이 만든 단체였기에 내빈으로 총독부의 시바타 겐자부로(柴田善三郎) 학무국장과 유케 코타로(弓削幸太郎) 학무과장,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 경성통신사 사장, 維民會 간부도 참석했으며, 시바타와 오가키는 축사를 했다.

대동사문회는 창립총회 다음날인 26일에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무이사 선정 건, 典事 선거 건 등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동사문회의 직원은 이사, 전사, 고문, 서기로 구성되고, 이사 30인 중 15인은 발기인과 중복되고 나머지 15인은 추천을 통해 새로 뽑았다. 또 이사 중에서 정만조, 홍궁섭, 최영년, 어윤적, 박노학, 송지현, 이범철, 김정기 8인을 상무이사로 선출했다. 상무이사 8인은 각 부서의 주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홍궁섭은 창립총회에서 임시회장을 맡아 회칙과 규정을 의결하고, 정만조는 이사를 추천하는 제1회 이사회에서 임시회장을 맡는 등 대동사문회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대동사문회는 “본회 목적을 관철키 위하여”(회칙 제5조) 6부 곧 經義部(주임 정만조), 治事部(주임 어윤적), 景賢部(주임 홍궁섭), 圖書部(주임 송지현), 編纂部(주임 최영년), 庶務部(주임 이범철, 문서과장 김정기, 회계과장 박노학)를 두고 주임을 임명했다. 하지만 창립 후 9개월이 지난 10월 2일 이사회에서 홍궁섭, 최영년, 김정기가 해촉됨으로써 조직 체계가 변경된다.

<표1> 대동사문회의 주요 조직 및 업무

부서	업무	개정 사항
회장단	회장은 全會를 統裁 부회장은 회장 보좌 및 회장 유고시 회장 代辦 총무는 會務 總管	<1921.11.27.> - 理事共議制를 지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 부장, 평사장, 평사, 전사, 강사로 구성
經義部	①경전의 뜻 강론, 윤리와 도덕 권장 ②경학 중심의 문과대학 설립	- 도서부를 편찬부에 귀속, 社交部 신설
治事部	정책연구(지방, 법례, 학제, 식산, 재용, 혜정)	
司禮部	①先聖 영정의 봉안 및 享祀 展謁 ②일반 儀制의 講定 및 辨疑 答問	
景賢部	①賢哲을 숭상하여 서원과 鄉祠를 건설 ② 선행을 현양하기 위해 私諡와 정려를 내림	<1922.5.8.> - 사교부를 폐지, 司禮部 신설
典書部	① 서적 편찬 인쇄 및 본 회보 발행 ②도서 수취 보관 및 도서관 설립	- 편찬부를 典書部로 변경
庶務部	문서 접수·발신 및 공문서 보존, 금품 출납과 재산 관리	

위의 표는 『대동사문회보』 제2호 목차 앞에 수록된 「본회회칙」을 기반으로 대동사문회의 주요 조직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대동사문회의 조직은 이후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동사문회는 1920년 11월 27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理事共議制를 변경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부서의 부장, 과장, 評事長, 評事, 典事, 간사, 회계, 서기, 會正, 고문, 강사로 세분화했다.⁴⁾ 또한 일부 부서가 개

4) 대동사문회 창립 초기에는 회장 제도가 없어서 임시회장을 두어 운영했다. 1920년 11월 27일 임시 총회에서 회장 제도를 두어 윤용구를 회장으로 뽑았으나 5일 뒤에 윤용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식으로 있다가 1923년 1월 8일에 민영회가 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그 자리가 채워진다. 그리고 제4회 총회(1923.12.3.)에서 회장 위에 總裁를 두는 것으로 다시 변경된다. 총제 신설에 대해서는 「聖像봉안기념, 대동사문회의 재작일 총회와」, 『매일신보』 1923.12.05. 3면 참조.

편되어 도서부와 편찬부가 통합되고 社交部가 신설되며, 1922년 5월 8일에는 공자 서거 240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사교부를 폐지하고 司禮部를 신설한다.

위의 조직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사공의제를 탈피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를 신설하여 수평적 구조에서 수직적 구조로 개편됨으로써 회장, 부회장, 총무의 위상을 높였다. 둘째 공석이 장기간 유지되던 회장의 직임을 부회장 정만조가 대리하고, 어윤적이 총무로서 회무 전반을 총괄함으로써 대동사문회에서 이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이다. 대동사문회는 일진회, 중추원, 대동학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친일 유림 단체였다. 그러나 이 개편에서 일진회의 최영년(편찬부), 홍공섭(경현부), 김정기(서무과장)가 해촉되고, 각 부서장으로 李承旭(경의부), 閔丙燮(치사부), 徐相春(사례부), 송지현(경현부), 李海朝(전서부), 이범철(서무부)이 임명되었다. 게다가 회장이 공석으로 오래 지속됨으로써 부회장 정만조와 총무 어윤적이 대동사문회의 주축이 되었다.⁵⁾

대동사문회는 儒道の 講明을 목적으로 삼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한다고 회칙(2~3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會務를 담당하는 典事를 두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영역을 넓히고자 했다. 대동사문회는

5) 특히 어윤적은 지회 관리에도 주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대동사문회 간부의 지방 출장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대동사문회보』 제1호와 제2호에 수록된 경성본부 간부의 지회 출장 내용을 살펴보면 1920년 6월 14일부터 1922년 5월 22일까지 총 11회의 출장이 있었는데, 어윤적의 출장은 7회로, 다음과 같다. <경성본부 간부의 지회 출장 내용> 1920년 6월 14일 송지현이 會況 시찰로 전남 각 군에 출장; 6월 20일 어윤적이 회황 시찰로 함남 각 군에 출장; 7월 6일 이범철이 회황 시찰로 해서·평남에 출장; 10월 27일 어윤적이 공주 지회 총회에 출장; 12월 27일 咸平 지회 총회에 송지현이 출장; 1921년 4월 29일 공주 지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윤적이 출장; 5월 10일 정만조가 진도 백일장에 출장; 5월 28일 어윤적이 대전 지회 총회에 출장. 이후 학교 시찰의 공무로 경북, 전남북, 충북 출장; 7월 30일 어윤적이 공주 지회 백일장 요청으로 출장; 10월 26일 어윤적이 안변 지회 총회에 출장; 1922년 5월 20일 어윤적, 송지현이 대전 지회 백일장에 출장

지방 유림을 포섭하기 위해 지방 회무를 담당하는 典事를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1월 25일에 창립하여 약 3개월 동안 모집한 전사 총 563명이 『大東斯文會報』 제1호에 수록되어 있다.⁶⁾ 곽종석의 제자로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한 趙顯珪가 전사 명단에 수록되어 있고, 함경남도의 전사가 133명이나 되는 등 전사 명단을 완전히 신뢰하기에 부족하기는 하나 그래도 3개월의 성적이라면 지방 네트워크를 기민하게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동사문회의 지방 세력으로서의 확대는 지회 설립으로 이어진다.

<표2> 대동사문회 지회 인가 및 조직 구성 현황⁷⁾

연도	월	일	지회	인가 수
1920 (47)	2	24	靈山(×)	1
	3	20	麗水(○)	2
		25	順天(○)	
	4	2	義興(○)	6
		7	新興(○)	
		8	萬頃(×), 全州(○)	
		13	坡州(○)	
		30	咸興(○)	
	5	1	沃溝(○)	15
		4	漆原(×), 咸悅(○)	
		10	珍島(○), 咸陽(×), 瑞興(○)	
		12	成川(○), 晉州(×)	
		13	江西(○)	
		17	安州(○)	

6) 지방 회무를 담당하는 전사는 경기도 9개군 24명, 충청북도 7개군 16명, 충청남도 10개군 31명, 경상북도 11개군 32명, 경상남도 15개군 57명, 전라북도 11개군 38명, 전라남도 18개군 68명, 황해도 15개군 45명, 평안남도 12개군 75명, 평안북도 5개군 21명, 강원도 8개군 18명, 함경남도 5개군 133명, 함경북도 2개군 5명 총 128개군 563명이다. 지방 典事 명단은 『대동사문회보』 제1호, 75~86쪽 참조. 전사 명단을 수정·보완하고 해설한 것에 대해서는 정육재, 104~110쪽 참조.

		18	松禾(×), 彦陽(○)	
		20	順安(○)	
		22	樂安(○)	
		24	光州(光陽)(×○)	
	6	2	茂朱(○), 谷城(×), 龍安(×), 任實(○)	8
		3	南原(○), 咸平(○), 礪山(○)	
		22	茂長(○)	
	7	9	北靑(○)	5
		17	江東(○), 興海(○)	
		24	端川(○), 瑞山(○)	
	8	7	文化(○)	5
		9	永興(○)	
		24	舒川(×), 慈山(○), 陽德(○)	
	9	13	公州(○)	3
		23	扶安(○)	
		25	軍威(○)	
	10	10	江華(○)	2
		19	論山(×)	
1921 (5)	2	28	大同(○)	1
	4	6	光州(光陽)(×○), 安邊(○)	2
	5	24	大田(○)	1
	8	25	价川(○)	1
조직 41개 미조직 11개				52

『大東斯文會報』 제2호의 발행일(1922.10.24.) 기준으로 볼 때 대동사문

- 7) 「日記抄要」(『대동사문회보』 제2호, 71~80쪽)에서 인가 현황을 추출하고 「支會職員」(『대동사문회보』 제2호, 94~100쪽)에서 조직 여부를 확인하여 ‘○’와 ‘×’로 표시했다. 「지회직원」에 의하면 광양은 직원이 조직되고, 광주는 조직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가 사실을 기록한 「일기초요」에는 광주 지회의 인가 사실이 1920년 5월 24일과 1921년 4월 6일에 기록되어 있고, 광양 지회의 인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광주와 광양의 지회 인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光州(光陽)(×○)’으로 표기했다.

회는 1920년에 47개를 인가하고 1921년에 5개를 인가하여 모두 52개의 지회를 인가했다. 지회의 인가는 대부분은 대동사문회를 창립한 그해에 이루어졌으며, 1920년 5월에는 무려 15개 지회를 인가했다. 그러나 지회의 인가가 반드시 직원을 조직한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52개 지회 중 직원을 조직한 지회는 41개이고, 직원을 조직하지 못한 지회도 11개였다. 특히 경남의 영산 지회는 창립하자마자 첫 번째로 인가한 지회인데, 인가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직원을 조직하지 못했다.

<표3> 전사 선정 및 지회 인가 郡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해	합계
전사	8	9	15	11	17	11	10	7	11	5	5	2	15	126
지회	0	2	5	3	8	11	5	0	9	0	5	1	3	52

위의 표는 전사를 선정한 郡과 지회를 인가한 군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전사는 창립 초기의 상황이고, 지회는 안정기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경상도와 충청도, 황해도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가입한 숫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전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선정되지만, 지회 인가는 지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유림의 신청이 전제되어야만 인가가 나기 때문에 지회 인가가 실제로 더 부합한다. 이 중에서 경상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경남은 靈山, 漆原, 晉州, 咸陽, 彦陽 5곳에 지회가 인가되었고, 경북에서는 軍威, 興海, 義興 3곳에 지회가 인가되었다. 직원이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남은 언양 1곳, 경북은 3곳의 지회에서 직원이 조직되었다. 전국에 직원이 조직된 지회가 41개이므로 경상도 4곳은 조직률의 10%에 해당한다. 흔히 경상도를 유림의 '본산'이라 통칭하는데, 대동사문회의 지회 조직률이 경상도에서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경상도의 지회 조직률이 함경남도보다 낮은 이유는 유도진흥회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유도진흥회는 대동사문회보다 조금 늦게 창립했는데, 1920년 1월 16일 경성구락부에서 경성 유림 및 신사, 경상남북도 유림 및 신사 88명이 모여서 발기 총회를 거행했다. 이 중에서 유도진흥회 경북지부는 3월 14일 대구향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⁸⁾ 이 총회에서 경북지부장 李晩~, 부지부장 朴昇東·李能格, 총무 柳時一을 뽑은 뒤 대구, 달성, 군위, 경산, 영천, 경주, 영일, 영덕, 영양, 안동, 의성, 칠곡, 김천, 상주, 예천, 영주, 봉화, 성주, 고령, 청도, 선산, 청송에서 掌議 2~4명, 有司 각 2명씩을 선출했다.⁹⁾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23개군 중에서 울도군을 제외한 22개군에서 유도진흥회의 주요 당직자를 구성했다.¹⁰⁾ 경북지부의 사례를 참조하면, 경상도의 경우 유도진흥회의 세력이 공고하고, 조직 구성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대동사문회가 진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대동사문회의 구성원과 성격

대동사문회의 결성 및 운영의 주축은 8인의 상무이사 곧 鄭萬朝, 洪肯燮, 崔永年, 魚允迪, 朴魯學, 宋之憲, 李範喆, 金正基로, 이들은 모두 경

8) 유도진흥회의 결성 배후에는 경상북도 참여관이었던 申錫麟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3·1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大邱自制團 발기인이 되었고, 경북 관내를 돌며 각 군의 자제단 조직을 독려했으며, 신석린은 대구군의 掌議를 맡았다. 유도진흥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옥재, 114~116쪽 참조.

9) 「儒道振興會」, 『매일신보』 1920.04.01. 4면.

10) 유도진흥회는 대동사문회가 방해가 된다고 토로했는데(정옥재, 116~117쪽), 이것은 대동사문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동사문회는 창립과 동시에 향교토지 재산 환부 신청, 공자 서거 2400주년 기념식, 대성학원 설립 등을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유림 사회의 주도권 행사하려는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총독부의 주재로 인해 이 사업은 경학원, 유도진흥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경학원은 유림 사회의 만형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도진흥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 것은 총독부의 예산 배정 분산, 지방 유림에 서의 위상 약화 등 대동사문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동사문회를 창립하기 이전부터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인연과 계기를 통해 대동사문회를 창립하게 된 것일까. 그들의 과거 행적을 따라가면서 상무이사 8인 및 대동사문회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¹¹⁾

상무이사 8인 중에 홍공섭, 최영년, 이범철, 김정기, 박노학 총 5명이 일진회 간부였다. 홍공섭은 일진회 평의원장(1905), 일진회 총무원(1905), 일진회 부회장(1906~1909)을 지냈고, 최영년은 일진회 총무원(1907), 일진회 정견협정위원(1909)을 역임했다. 그리고 서무부를 맡은 이범철은 자위단원호회 제11호 위원장(1907)과 일진회 서기(1909)를 지냈고, 박노학은 일진회 평의원(1907~1910)과 일진회 범부조사위원장(1907), 자위단원호회 순회부장(1907)을 지냈으며, 김정기는 일진회 회원이었다.¹²⁾

어윤적과 송지현은 중추원 부찬의(1910~1921)를 지낸 인연이 있다. 정만조는 伊藤博文의 후원금으로 설립한 대동학회의 평의원(1908)과 간사로 활동했고, 대동학회를 계승한 공자교회 발기인(1909)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보면 대동사문회는 일진회 회원에 중추원과 대동학회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만조와 어윤적, 송지현, 최영년 등은

-
- 11) 상무이사 8인의 친일 행적과 대동사문회의 친일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옥제(95~104쪽)가 자세하게 살폈다. 본 항은 정옥제의 연구를 참조하고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로 친일 행적을 보완하되 상무이사 8인의 상호 인연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도록 하겠다.
- 12) 日韓合邦記念塔은 일본의 우익 단체인 흑룡회가 1910년의 한일 병합 조약 체결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한 나라가 된 지 2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1934년에 일본의 도쿄에 세운 탑이다. 『日韓合邦記念塔寫眞帖』은 이 탑을 준공하는 과정과 참여한 인물의 사진을 수록하고 있는데, 한일병합에 공로가 있는 일진회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사진첩 가운데 「日韓合邦記念塔建設に就て」라는 팜플렛이 있는데, 간부 명단에 최영년, 會道會長 및 評議員 명단(69~70쪽)에 이범철, 박노학, 김정기, 함방찬성 편지를 올린 縉紳儒生 명단에 대동사문회의 발기인이자 이사인 徐相春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鈴木一郎 編, 「日韓合邦記念塔建設に就て」, 『日韓合邦記念塔寫眞帖』, 1934. 참고로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대동사문회를 창립하게 된 것일까.

<표4> 詩文書畫擬科(大)會 考試官 명단

과목	고시관
統裁部	김윤식, 여규형, 김가진, 박기양
詩考試部	정만조, 이재정, 조병건, 이응익, 윤덕영, 심종순 , 강우형, 김득런, 최영년 , 송지현 , 송영대, 한진창, 이기 , 안왕거, 어윤적 , 이승현 , 지창한
文考試部	윤희구 , 서상훈 , 박이양 , 정봉시, 이상영, 유근, 장지연, 윤형구, 정윤수, 신면휴, 최동식, 홍필주
書考試部	현채 , 김규진, 오세창, 정대유, 김돈희, 유한익, 현은, 정병조, 강진희, 노원상

위의 표는 1917년 6월 10일 장충단 대광장에서 개최되는 <詩文書畫擬科(大)會> 광고 기사에서 詩·文·書의 고시관 명단을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다(畫고시관은 생략). <詩文書畫擬科(大)會>는 “擬科”라는 제목에 알 수 있듯이 과거시험을 모의하여 치르는 일종의 백일장이었다. 그래서 본문 첫머리에 “과거를 설치하여 시문으로 선비를 선발하는 제도는 당나라에서 시작했는데 조선에서 書·畫 두 과목을 겸하여 시행하여 才學들이 흥성했다.”라고 시작하면서 “천하의 士子 爭先來赴하여 각각 桂花 第一枝를 高攀하라”라고 홍보했다.¹³⁾ 이 모의 과거시험을 어디에서 주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매일신보』 1면의 1/6을 차지할 정도로 광고면을 사용한 점과 며칠간 계속해서 이 광고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모의 과거시험은 성황리에 끝난 듯하다. 『매일신보』는 3면의 1/3에 해당하는 상단 전체를 할애하여 과거시험의 정황과 사진을 게재했으며, 모의 과거시험에 참여한 인원이 5~6만에 이르렀다고 했다.¹⁴⁾

13) <詩文書畫擬科(大)會> 및 한일병합 후 친일 유림의 문예활동에 대해서는 강명관, 141~172쪽 참조.

대동사문회의 상무이사 8인은 일진회와 중추원, 대동학회 회원으로 구성되어었는데, 창립 이전에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접점을 찾거나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상무이사 8인 중 4인 곧 정만조, 최영년, 송지현, 어운적이 대동사문회가 결성되기 1년 6개월 전에 모의 과거시험 시고시부의 고시관으로 함께 활동했음은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모의 과거시험의 고시관 중에 심종순(발기인, 강사), 이기(발기인, 이사), 윤희구(강사), 박이양(이사, 강사), 서상훈(이사, 강사), 이승현(평사장), 현채(발기인)도 대동사문회에 참여한 사실을 고려하면 모의 과거시험의 고시관 활동이 대동사문회의 창립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사문회는 유교를 강명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고, 임원을 맡은 인물들은 漢詩文 창작에 능한 작가들이었다. 이들은 모의 과거시험 이전에도 다양한 문예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흔적이 보인다. 문예구락부는 1911년 7월에 조직된 단체로 홍궁섭, 윤희구, 정인보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했는데, 일진회 회원이던 홍궁섭, 이범철, 박노학이 간사를 맡았다. 또 以文會는 친일 유림과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고위 관료가 참가한 단체로 1912년 1월에 창립되었다. 이문회에 대동사문회와 관련이 있는 인물은 정만조, 윤희구, 서상훈이다. 아래에서는 이문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표5> 이문회 창립 주요 인물¹⁵⁾

구분	조선인	일본인
발기인 (15명)	朴泳孝, 李完用, 金允植, 朴齊純, 趙重應, 呂圭亨, 鄭萬朝, 成夏國, 具義書, 鄭丙朝, 尹喜求(총11명)	檜垣直右, 國分象太郎, 久芳直介, 松田甲(총4명)
발기식 (24명)	박영효, 이완용, 박제순, 閔丙奭, 尹惠榮, 張錫周, 金嘉鎭, 李容植, 朴箕	國分象太郎, 久芳直介, 松田甲, 明石元二郎, 藤田嗣章, 小松綠,

14) 「昔日의 科擧가 如斯하던가」, 『매일신보』 1917.06.19. 3면

15) 『이문회지』 임자(1912) 제1집, 32쪽(황위주, 247~248쪽 재인용).

	陽, 朴齊斌, 여규형, 정병조, 성하국, 윤희구 , 尹致昨, 徐相助 , 趙秉健(총 17명)	草場謹三郎(총 7명)
초대 임원 (6명)	박제순(회장), 정병조(간사), 윤치오(간사)	國分象太郎(부회장), 久芳直介(간사), 松田甲(간사)

이문회는 총독부와 중추원에 소속된 인물들이 주도하여 결성한 단체로, 조선과 일본 간의 친목 도모, 경학과 시문 연구 등을 표방했다. 초대 임원을 보면 회장과 부회장을 조선과 일본이 한 명씩 맡고, 간사를 각국이 2명씩 맡아 조선과 일본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창립에 관계한 여타 인물을 제외하고도 경술국적 8명 중 5명 곧 이완용, 박제순, 윤덕영, 조중응, 민병석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중에서 대동사문화와 관련이 있는 인물은 정만조, 윤희구, 서상훈이다. 정만조는 발기인에 명단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동생 정병조가 이문회의 간사를 맡고 있으므로 정만조 역시 이 단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문회의 회원은 첫째인 1912년에 54명이었고, 1915년에 99명으로 대폭 늘어나서 대략 100여 명 내외를 유지했다. 조선 측 회원의 연인원은 101명인데, 주요 이력을 보면 작위 수여자 31명, 중추원·경학원·구관료 31명, 총독부 지방관 21명, 교원·예술가 10명, 기타 8명이다.¹⁶⁾

『以文會誌』 무오2집(1918.11.9.)에 최영년, 박이양이 신규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최영년은 ‘교원·예술가 10명’ 중 한 명이다. 친일 부역자로서 작위가 있거나 고위 관료가 아니면 회원 가입조차 힘든 곳이 이문회이다. 기존 회원의 추천이 없다면 최영년의 가입은 어려웠을 것이다. 최영년을 추천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詩文書畫擬科(大)會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대회와 고시관 명단에 이문회 회원

16) 이문회에 참여한 조선과 일본인의 출신과 직업, 입탈퇴 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소개는 황위주, 247~267쪽 참조.

이자 대동사문회 창립의 주요 인물인 정만조, 윤희구, 서상훈과 최영년이 있었음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대동사문회가 창립된 뒤에는 대동사문회의 회원인 어윤적, 송지현, 李琦(발기인), 홍희(발기인), 吳國東(후원자, 會正)이 이문회 회원으로 가입하는데,¹⁷⁾ 여기에도 정만조·윤희구·서상훈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동사문회의 주축 회원들은 창립 전후로 문예구락부, 이문회, 시문서화의과대회 등의 문예활동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동사문회 조직도를 살펴보면 초기의 주축 인물은 정만조, 최영년, 어윤적, 송지현이다. 대동사문회가 결성되기 전에 정만조는 대동학회의 평의원을 지냈고, 어윤적과 송지현은 중추원의 부찬의였고, 최영년은 일진회 총무원과 일진회 기관지 『國民新報』의 주필을 지냈다. 대동사문회가 친일 유림들이 만든 단체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동사문회에는 친일의 흔적들이 자주 보인다.

대동사문회의 발기문에 의하면 斯文은 4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내려오는 동안 윤리를 밝히고 의를 행하는 도와 이용후생의 사업이 한 번 정해져 천하만세의 법이 되었으나 근세 이래로 풍기가 한번 바뀌어 괴설이 성행하고 군자가 일어나지 않아 문묘에 제사하는 일이 없고, 지방에 현송(絃誦)하는 소리가 끊어졌으며, 경박하고 천박한 습속과 사치하고 음탕한 풍습이 날로달로 늘어나고 성행하여 인륜이 무너지고 염치가 사라질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¹⁸⁾고 했다.

서양 문명이 유입된 뒤부터 아름답던 과거 전통의 기강이 무너지고 윤리가 쇠퇴했다고 현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보수유림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대동사문회만의 독특한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 당대인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現在化 전략의 일종인 이용후생을 주장하는 것도 그리 독특하

17) 『이문회지』 신유1집(1921.7.10.) 회원록 참조.

18) 「會中記事」, 『대동사문회보』 제2호, 59~60쪽.

지 않다.

그러나 대동사문회에 앞서 결성했던 친일 유림 단체 大東學會가 “正德, 利用, 厚生 3가지를 폐하지 않고 모두 행한다면 거의 유교가 다시 밝아져서 우리가 버려진 물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¹⁹⁾라고 하고, 일본 유림 단체 斯文會가 “이런 때에 본회는 조야 여러분의 찬조로 유도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도덕을 고취하여 정신적 문명의 진흥에 힘쓰고 그 이용후생과 관계되는 물질적 문명의 발달과 동반하러 한다.”²⁰⁾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대동학회, 대동사문회 그리고 일본의 사문회가 모두 ‘이용후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단체의 이름인 ‘대동사문’을 정의하는 데에서도 혼선을 빚을 정도로 친일적 성격이 드러난다. 『대동사문회보』에는 ‘대동’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사례에 따라 한반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발기문에서 “하늘이 대동에 사문을 내린 것이 이제 4천 년이다.[天降斯文於大東, 今至四千年之久.]”라 했고, 「會綱六翼」에서 어윤적은 “모임을 대동사문이라고 지은 것은 어째서인가? 대동은 우리 조선이 스스로를 부르는 별칭이다. 우리 유림들이 상호 부르는 대체어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 유림이 단합하여 모임을 만든 것이다.”²¹⁾라고 했다.

어윤적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동사문회의 전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대동학회의 친일 유림 呂圭亨 역시 대동학회의 서문에서 “우리 대동은 유학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조정에는 유신이 있고, 재야에는 유현이 있다.[我大東以儒學立國, 在朝爲儒臣, 在野爲儒賢.]”라고 했다. 柳希齡의 『大

19) 申箕善, 「大東學會趣旨書」, 『대동학회월보』 제1호(1908.2.25.), 2~3쪽.

20) 「재단법인 사문회취의서[斯文會趣意書]」, 장순순 외, 『일본 유교잡지 『斯文』 주요 기사』 1, 선인, 2022, 14쪽.

21) 魚允迪, 「會綱六翼」, 『대동사문회보』 제1호 28쪽, “會以大東斯文名, 何也? 大東者, 我朝鮮自命之別稱也; 斯文者, 我儒林相呼之代名也. 換言, 則朝鮮儒林團合而爲會者也.”

東詩林』・『東聯珠詩格』,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 郎善君 李俔의 『大東金石書』, 金正浩의 『大東輿地圖』・『大東地志』, 張志淵의 『大東詩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대동’은 한반도를 의미했고, 어윤적과 여규형도 이를 따랐다. 하지만 대동사문회의 창간문에서 정의한 대동은 일반적인 정의와 다르다.

그렇다면 ‘조선’이라 말하지 않고 ‘대동’이라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야흐로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이 천하의 문명을 말하고 있으니 실로 문명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 다만 약자의 육신을 강자가 먹는 것을 우승열패라고 말하고, 새벽부터 이익을 도모하고 골짜기 배를 욕심으로 여기는 것을 생존경쟁이라 말한다.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죽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니 왕도에서 아득히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패자들의 假仁・假義도 볼 수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풍기가 타락하고 도의가 상실되어 사문에 속한 5억만 인구가 기나긴 밤과 비바람 치는 곳으로 들어갔다. 범의 꼬리를 밟는 시대에 미쳐 사문을 부흥하여 대동을 경륜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²²⁾

창간문을 작성한 이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천하의 문명”을 말하지만 우승열패와 생존경쟁을 하느라 “사문에 속한 5억만 인구”가 암흑 속으로 치닫고 있으니 “사문을 부흥하여 대동을 경륜”해야 한다고 했다. 곧 5억만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대동이고, 이곳에서 사문을 부흥해야 한다는 말이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영토는 대략 3천 리이고, 인구는 2천만 명이었다. 그렇다면 5억이라는 인구는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 동아시아 전체의 인구를 가리킨다. 대동의 범위가 동아시아로 확장된 셈이다. 대동사

22) 「大東斯文會報創刊文」, 『대동사문회보』 제1호 1~2쪽, “然則不曰朝鮮, 而曰大東, 何也? 方今世界口口稱天下文明, 實未見文明之象. 但弱之肉強之食, 謂之優勝劣敗; 以鷄鳴爲利壑舟爲慾, 謂之生存競爭, 干戈相讐元元塗炭, 邈乎王道尙矣. 勿論霸之假仁假義猶不可見, 由是風氣漸墮, 道義俱喪, 斯文範圍之五億萬人口, 渾入於長夜風雨之中. 以此啞尾之時, 要斯文之復興, 彌綸乎大東, 不亦可乎?”

문회에서 대동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다. 최영년은 “以大東言之컨댄 斯文範圍 | 庶不下五億萬인대 斯文之風이 一時衰退는 已無可論이어나와”²³⁾라고 하여 대동의 범위를 창간문과 같이 오억 만으로 정하고 있다.

대동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처음 확장한 것은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였다. 그는 『大東合邦論』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아시아가 함께 문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합방’하여 ‘大東國’이라는 연방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동남아시아와 연대하여 ‘대아시아연방’을 결성해야 한다고 했다. 유교의 이상적 가치를 토대로 아시아 국가의 연대와 일본의 침략주의를 동시에 포함하고 논리인데, 조선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유림의 동조를 얻기도 했다. 실제로 1909년 12월 일진회가 ‘정합방’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정합방’을 지지하는 유생층의 찬성서에서 다루이 도키치의 이름과 그의 주장이 거론되기도 했다.²⁴⁾ 대동사문회의 상무이사 8인 중 5인이 일진회 출신이고, 그중 홍궁섭은 일진회의 평의원장과 총무원을 지냈고, 최영년도 일진회의 총무원을 지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론’이 일진회 출신인 최영년을 통해 대동사문회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대동사문회의 활동과 사업

대동사문회는 중점을 두고 주력해야 할 사업을 「발기문」에서 밝혔다. 첫째는 도덕을 존중하고 인륜을 부식하는 일이고, 둘째는 각 군 향교와 고을에 강당을 설치하는 일이고, 셋째는 경술과 문예 강연회를 매달 개최하는 일이고, 넷째는 서적을 편찬하고 잡지를 발행하는 일이고, 다섯

23) 「會中記事」, 『대동사문회보』 제1호, 66쪽.

24) 김윤희, 「대동합방론의 출판과 재판 그리고 전유 과정」, 『민족문화논총』 7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0, 6~8쪽.

제는 도서를 수집하여 마음껏 열람하게 하는 일이고, 여섯째 각 지방에서 훌륭한 말을 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기록하고 널리 배포하여 장려하는 일이다.²⁵⁾

대동사문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1회 임시 총회에서 經義部, 治事部, 景賢部, 圖書部, 編纂部, 庶務部 6개의 부서를 두었다가(1920.1.26.) 도서관부와 편찬부를 통합하고 社交部를 신설(1920.11.27.), 다시 제3회 정기 총회에서 편찬부를 典書部로 고치고 사교부 대신 司禮部를 신설하여 경의부, 치사부, 사례부, 경현부, 전서부, 서무부를 두게 된다(1922.5.6.). 대동사문회에서 초기에 역점을 둔 사업은 경의부의 “經科學校설립”, 사례부의 “先聖 영정의 봉안 및 향사전알”, 경현부의 “賢哲崇報과 관련된 서원 및 鄉祠 건설” 등이었다. 아래에서는 현철을 숭상하고 향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향교재산 환부 제안,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과대학인 大成學院 설립 추진, 孔夫子 忌辰 40周甲 追慕式 거행을 중심으로 대동사문회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향교재산 환수 청원서 제출

조선 후기 지역 사회의 교육과 선현 봉사를 주도하던 것은 향교가 아니라 서원이었다. 퇴계학과, 율곡학과, 화서학과, 노사학과로 불리는 학맥은 서원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들이 정계에 진출하면 정치적 파벌로 이어졌다. 흔히 남인, 북인, 서인, 동인, 노론, 소론이라고 하는 정파 역시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모든 향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향교는 교육 기능을 상실하고 제향 활동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지역에서 가지는 향교의 역할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²⁶⁾ 지방의 유림의 영향력도 점차 향교

25) 「會中記事」, 『대동사문회보』 제1호, 60쪽.

26) 김자운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119~120쪽.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망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향교의 재산은 더 이상 향교가 자체로 운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享祀釐正에 關한 件>

제1조 : 壇 廟 社 殿 宮 陵 園 墓의 祀典을 左와 如히 改正하여 宮內府에서 此를 舉行함.

<鄉校財産管理規程>

제1조 : “향교 재산은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受하여 부윤·군수가 관리함 단 특별한 사정이 有한 時는 부윤·군수는 관찰사의 인가를 受하여 특정 관리인을 置하여 관리케 함을 得함. 此 경우에는 부윤·군수는 특정 관리인의 관리 사무를 감독함.

제3조 : 향교재산에서 生하는 수입은 향교소재 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관찰사의 지정한 학교의 경비에 사용하는者로 함. 전항 이외에 관찰사가 필요로 認한 시는 특히 향교 또는 문묘의 수리비 及 향사비에 사용함을 득함.

일제는 향교재산을 公共財産으로 인식하고 1908년 7월 23일 「享祀釐正에 關한 件」을 頒布함으로써 향교재산을 정부 소관으로 전환시켰다. 향교 직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시도하여 1908년 10월 29일 「成均館官制」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 향교에 直員 1인을 두되 해당 郡 유림 중에서 선임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한 1910년 4월 23일자 「鄉校財産管理規程」을 반포하여 향교 재산을 부윤·군수가 관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향교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유림들로부터 완전히 박탈했고, 같은 달 26 일에는 학부훈령 제2호를 발하여 향교 직원의 사무에 대해 지방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11년 10월 28일에 「文廟直員에 關한 件」을 반포하여 향교 직제에 대한 통제를 공식화했다.²⁷⁾

일제가 문묘에 제사를 지내거나 지방 교화를 진흥시키는 사업에 예산

27) 김명우, 「일제강점기 향교 直員과 掌議」, 『중앙사론』 25,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07, 129~130쪽.

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향교 수입의 많은 부분이 공립보통학교 경비에 소용되었다. 향교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고, 지방 유림은 이를 크게 불만스럽게 여겼다. 대동사문회는 향교의 재산권 이동의 추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지방 유림의 불만도 알고 있었다.

1920년 2월 12일 상무이사 8명은 향교의 토지를 사립에게 돌려줄 것을 청하는 청원서를 내기로 긴급하게 의결하고 2월 13일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창립 후 첫 번째로 진행하는 대외활동이었다.

조선 고래로 유림의 교육기관은 국도의 성균관 及 지방에 향교가 是이온바 기 유지비용은 성균관을 제외하고 일반 향교에 在하야는 該지방 유림이 협력하야 각히 不尠한 재산을 혹 출력기부하고 혹 각금매수하고 기 중에 혹 지방 관찰사수령이 기 녹봉을 捐하야 보조도 하고 혹 官權을 借하야 田土를 개간하야 付屬도 한 자가 유하나 該관찰수령도 역시 유림 중 일인이라 즉 유생 신분으로 차를 출자한 것이오 결코 官有를 僱부함은 아님으로 향교재산은 정부에서 연년 支撥하는 免稅 幾結 외에는 純然한 該지방 유림이 공유이온지라 융희 연간에 始하야 정부에서 차를 관리하야 보통학교 경비에 充용하고 각 향교에서는 약간 의 향사비만 지말함으로 일반 유림이 冤屈을 大呼함은 물론이요고 차로 인하야 유풍의 쇄퇴와 예측의 붕괴가 극도에 달하온지라 차차 십삼도 유림이 유도를 강명할 목적으로 대동사문회를 조직하온 바 차 목적을 관철할 방법은 최선 각 향교를 확장하야 유풍을 奮起함이 급무이요고 차를 확장코자 하오면 상당한 비용을 요하온바 前記 각 향교재산은 기 이유 급 성질이 특수하오니 향교재산의 전부를 各該 향교에 還下付하시되 환부 방법은 본회에 위임하심을 望함.²⁸⁾

대동사문회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4일 뒤 2월 17일에 각 군 향교와 본회의 각 군 典事에게 공문을 보내 향교재산 환부 이유 및 방법에 대해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고, 언론에도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낸 듯하다.²⁹⁾ 그리고 향교재산 환부 건은 대동사문회의 의무이니, 향

28) 「會中記事」, 『대동사문회보』 제1호, 86~87쪽.

29) 향교재산 환부와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이 「향교재산과 각 신문」(『대동사문회보』 제2호, 55~58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일시, 신문사, 기사 제목(내용) 순으로

교재산과 관련되어 관청이나 당국에 개별적으로 재산 환부에 관련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대동사문회가 향교재산 환부 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일부 신문에서 오보가 발행하기도 했다. 여러 신문에서 대동사문회의 청원을 중추원에서 찬성하고 가결했다는 내용을 실었으나, 이것은 유케 코타로(弓削幸太郎) 학무과장이 교육에 관한 담화를 하던 중에 향교재산 관리 상황을 언급한 것이 誤傳되어 발생한 일이었다.³⁰⁾ 이 때문에 대동사문회는 「향교재산과 각 신문」(『대동사문회보』 제2호, 55~58쪽)의 끝에 “각 신문 중 중추원 회의 가결이라 함은 사실이 無하고 환부라 함은 환부가 아니라 기 재산을 專혀 文廟諸費와 유학장려에만 충용함이라”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실제로 향교재산은 조선총독부 관할 하에 있었고, 공립보통학교 비용, 문묘 제사, 문묘 수선 비용에만 사용되었지 유림에게 환부된 적이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제정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고쳐 「향교재산관리규칙」(1920.6.23.)을 제정한다. 향교 재산은 부윤, 군수, 도사(島司)가 관리하지만, 향교 재산을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그럼에도 향교재산 환부 신청은 대동사문회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향교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제향 기능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 이는 대동사문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했다. 둘째 향교재산 환부 관련 이슈를 주도하여 여론을 형성한 점에서 보자면 경향의 유림에게 대동사문회를 크게 알리는 계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20.02.19 / 大阪朝日新聞 / 儒教優遇問題; 02.20. / 경성일보 / 대동사문회 향교재산 분리 청원; 04.09. / 매일신보 / 향교재산 하부에 대하여 대동사문회에서 총독 부에 원서를 제출함은...; 4월 제6호 / 시사신문 향교재산 환부; 04.10. / 대판조일신문 / 향교재산 환부 문묘유지와 유교진흥의 비용에 充함; 04.11. / 매일신보 / 향교재산 문제 환부가 아니라 기수입을 유학 장려에 충용함이라; 04.13. / 대판조일신문 / 재산을 환부, 대동사문회.

30) 「향교재산 환부설은 허보」, 『동아일보』 1920.04.11. 2면.

가 되었다. 셋째 대동사문회는 지방 회무를 담당하는 전사를 뽑고 지회를 두어 대동사문회의 영향력을 지방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 당시 경학원은 교육 기능이 없고 제향 기능만 있었으므로 향교에 대한 영향력이 조선 후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동사문회는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유림의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2. 공자 추모식 집행 및 大成學院 설립 추진

대동사문회는 1921년 10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때 총무 어윤적이 다음 해인 임술년(1922)이 孔夫子 忌辰 40周甲임을 상기시키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성학원을 창립하는 안건과 공자의 영정을 모사하여 대동사문회관에 봉안하는 안건을 제출한다.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됨으로써 공자 추모 행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래에서는 공자 추모에 해당하는 공자의 영정 봉안과 석전, 교육에 해당하는 대성학원 건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공자 추모식 거행 및 공자 영정 봉안

유림이 1차대전을 종식시키고 연맹을 체결하며, 미국 사람이 人道를 내세우며 정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애당초 우리의 도가 서방으로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천하를 바로잡고 백성을 보호하여 그로써 만세의 태평을 여는 것이 우리 부자의 도를 버린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하겠는가. 우리가 이 임무를 맡고서 어떻게 큰소리로 불러 우리 사해 동포를 환기시키고자 하지 않겠는가. 아, 이 해에는 어떠한 해이며, 이 일은 어떠한 일인가. 일이 마치 인을 행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것을 기다림이 있는 듯하다. 이에 본 회에서 이 일을 창도하여 ‘孔夫子 忌辰 40周甲 追慕 禮式’이라고 명명하고 아울러 여러 건의 기념사업을 다스리니, 경성에 사무실을 두었다.³¹⁾

31) 「孔夫子忌辰四十周甲追慕禮式及紀念事業發起文」, 『대동사문회보』 제2호 33~34쪽.

대동사문회는 11월 29일 「공부자 기신 40주갑 추모 예식 및 기념사업 발기문」을 인쇄하여 지방의 典事와 지회, 道・府・郡・島・面 및 향교・서원에 발송한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언론에서 공자 서거 추모 및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기사와 사실로 보도한다.³²⁾ 그러나 대동사문회가 맨 처음 단독으로 발기하고 추진했다고는 하나, 공자 서거 2400년 추모 및 기념행사는 단독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 당시 유림 단체로는 만형 격인 경학원이 있고, 대동사문회보다 조금 늦게 결성된 유도진흥회가 있었다.

1922년 1월 26일 경학원 부제학과 사성, 대동사문회의 부회장과 총무, 유도진흥회의 부회장과 총무가 경학원에서 만났다. 이들은 대동사문회에서 발기한 ‘공부자 기신 40주갑 추모 예식’은 경학원과 유도진흥회를 추가하여 3단체가, 기념사업은 유도진흥회를 추가하여 2단체가 발기하기로 결정했다. (단락 조정함)

3월 4일 대동사문회 간부, 경학원 직원, 유도진흥회 간부가 懇親會를 열었다. 공자 추모 예식은 경학원,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가 각각 담당위원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는데, 대동사문회에서는 李承旭 경의부장, 송지헌 경현부장, 이범철 서무부장을 위원으로 선발했고, 어윤적 총무부장은 관례에 따라 참석하기로 했다. 공부자 기신 40주갑 추모 예식은 5월 7일(음력 4월 11일) 오전 9시 경학원 대성전에서 거행하여 配位・從享位에 예를 올리고 오랫동안 제향을 폐했던 동무와 서무, 계성사를 復享했다. 대동사문회 회원만 15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이 행사는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공자 추모식과 대성학원 설립은 대동사문회가 단독으로 발의한 것이

32) 孔夫子 忌辰 40周甲 追慕式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이에 대해서는 「大東斯文會記念事業」(『매일신보』 1921.12.08.2면); 「大成學院計畫-孔子追慕紀念으로 大東斯文會의 發起」(『동아일보』 1921.12.08.2면); 「大東斯文會事業, 儒林界 覺醒의 好例」(『매일신보』 1921.12.09.1면); 「大東斯文會에 新施設에 對하여」(『조선일보』 1921.12.11.1면) 등 참조.

지만, 결과적으로 경학원·유도진흥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공자의 영정을 대동사문회관에 봉안하는 것이었다. 4월 17일에서 서무부장 이범철이 畫師 趙順基를 대동하고 수원에 있는 闕里祠에 가서 공자 영정을 이모하고 온다. 그리고 공자 기신 40주갑 추모식을 겸한 석전제가 끝난 다음 날(5월 8일)에 대동사문회관 내에서 공자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다. 대동사문회는 공장 영정을 봉안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매달 1일과 15일에 분향례를 거행하기로 결정하고, 분향료도 50전으로 규정했다.

<표6> 공자 영정 봉안 기금 납부 현황

기금 내용	명단
①영정 봉안 현성금	魚允京(김해) 10원, 여수 지회 100원, 李光昱(동래) 10원, 黃泳皐(덕천유림대표) 20원, 黃繼周(완도) 10원, 朴政欽(옥천) 10원, 孔聖學(개성) 100원, 李淳欽(재령), 吳國東(해주) 200원, 무주 지회 40원, 金閔煥(공주) 30원, 崔鎭烈(광양) 10원, 안변 지회 10원, 흥해 지회 100원, 강화 지회 10원, 固城 향교 10원, 함흥 지회 50원, 曹秉洙(진도) 15원, 순창향교 30원, 趙庠來(순창) 10원, 金馨珮(진도) 10원, 洪性肅(은율) 10원, 朱性根(경성) 10원, 林憲彰·林應洙(연기) 30원, 林樛珉(보성) 10원
②분향료 기본금	정만조, 어윤적, 이승옥, 민병섭, 서상춘, 송지현, 이해조, 이범철, 구찬서, 고준상, 이건춘, 박희양, 홍희, 류조환, 김문연, 조병건, 서상훈, 심종순, 박이얏(이상 경성), 김우섭(돌산), 김근용(개성), 정충섭(여수), 정영민(여수), 이화진(평양), 권도상(제천), 이윤종(廣州), 안순환(경성), 이종문(해주), 윤제선(경성), 이광옥(동래)

위의 표는 공자 영정 봉안과 관련하여 성금을 낸 명단으로, ①은 孔夫子 影幀 摹寫 奉安時 獻誠芳名錄, ②는 焚香料 基本金 納入氏名錄에서 가져왔다. ①은 현성금을 낸 총 327건(개인 및 단체 포함)에서 10원 이상을 헌금한 명단이고, ②는 총회 당일 분향료 납부가 결정되자 현장에 10원을 납부한 사람의 명단이다. 이처럼 현성금과 기본금을 대대적으로 납부한 것은 공자 영정을 봉안하는 것이 대동사문회가 단독으로 추진하

는 사안, 곧 경학원·유도진흥회와 구분되는 대동사문회의 대표 사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공자 영정을 봉안하고 유지하던 사업은 공자의 金像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³³⁾ 동경에 출장 중이던 중추원 참의이자 대동사문회의 총무 어윤적은 우연히 공자의 金像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본국으로 모셔와 12월 13일에 관훈동에 있는 대동사문회관에 봉안하게 된다. 이 금상은 원래 청나라의 王公들이 소유했으나 청나라 망하면서 일본의 고물상으로 오게 되었고, 마침 동경에 있던 조선의 선비 陸鍾允이 만금을 아끼지 않고 구입하여 집안에 봉안하고 조석으로 참배하고 있었는데, 육종윤이 어윤적을 만나 일반 유림 전체와 함께 참배하고 싶다고 하여 대동사문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2) 문과대학 大成學院 설립 추진

대동사문회의 회칙에 의하면 6개의 실무 부서 중에서 경의부가 가장 앞서 나오는데, 경의부의 업무 중 하나가 “경학을 주요로 한 문과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經科學校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다. 대동사문회가 문과대학 설립을 회칙으로 제정한 것은 경학원과 향교의 교육 기능이 일제에 병합되기 전부터 이미 상실되었고, 유도를 강명하기 위한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33) 공자의 金像을 봉안한 건에 대해 『매일신보』에서 다룬 기사는 다음과 같다. 「前清皇室의 秘藏品이던 孔夫子聖像朝鮮移安, 동경에 출장 중이던 중추원참의 어윤적씨가 모시고 와서 대동사문회 본부에 봉안하란다」(1922.12.08.), 「金像의 由來와 陸氏의 慕聖誠意, 공자 성상이 조선에 오시는 경로」(12.08.), 「昨朝東京을 떠나 朝鮮오시는 孔夫子聖像, 어윤적 씨가 모시고 온다고 해 명심삼일 오후 네시 오십분에 의장고취의 전도로 관훈에」(12.12.), 「盛況中에 東京出發, 관민유지의 성대한 봉송」(12.13.), 「孔子金像着京과 儒林團大歡喜, 조선 유교의 중흥할 조짐이라하여 일반유림들은 수무족도, 今日 午後 四時五十分入城」(12.13) 등.

옛날의 학문은 하나일 뿐이었는데 지금의 학문은 분야가 매우 많으니, 과학이 일어나서이다. 과학이 일어나면서 소학교와 중학교의 수신 교과가 일주일에 약간의 시수를 차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덕성을 기를 방법이 아예 없으니, 성현이 전수한 것이 애초에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한다. 아, 동아시아에 태어나도를 믿고 있는 서적을 보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또한 지금 세상의 상황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학 역시 폐할 수 없다. 모름지기 문과대학을 세울 때 그 학사과정에 반드시 경학을 중심으로 삼아 체와 용을 구비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 재야에 있을 때는 사회의 풍기를 자임하고, 위정자가 되었을 때는 국가의 부강을 이룩하여 우리 眞儒의 면목을 발휘하여 무적천하가 되도록 기약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설립은 큰 자본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므로 뜻을 함께하는 여러 군자들과 조만간에 상의해야 할 것이다.³⁴⁾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문명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문 분과는 다양해졌고, 배울 분야도 넓어졌다. 젊은 세대의 학습 선택권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유학이었고, 일주일에 몇 시간 배정된 수신 교과 수업을 제외하고는 덕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대동사문회는 전통 교육의 부재 또는 지리멸렬의 근원적 이유가 과학의 흥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과학을 무시하고 교육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경학을 체로 삼고 과학을 용으로 삼는 문과대학의 설립을 창립 초기부터 계획하여 “경학을 주요로 한 문과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명시했다.

다만 대학 설립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또 회원들의 협조와 후원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학 설립에 관한 논의는 1년 8개월 뒤에 다시 시작된다. 대동사문회는 1921년 10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부자 기신 40주갑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大成學院을 창립하는 안건을 가결함으로써 대성학원 설립 활동이 본격화된다.

(공자를 추모하는) 기념사업은 영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므로

34) 「會綱六翼, 『대동사문회보』 제1호, 1920, 31쪽.

장차 하나의 학교를 세우고 이름은 대성학원으로 하며, 과목은 경학을 체로 삼고 과학을 용으로 삼는다. 위치는 경학원의 비천당, 학년은 3개 학년, 학생은 1학년이 100명이다. 모집 방법은 조선 행정구역 232곳에서 해마다 70여 군에서 각각 1인을 선발하여 選貢生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20여 인은 일반 지원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한다. 3학년에 이르면 각 府·郡·島 선공생 全數가 재학하고, 3학년이 졸업하면 계속해서 선공생으로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학원에는 각 군의 선공생이 길이 모두 모이고, 각 군에는 본원의 졸업생이 3년마다 1명이 배출된다. 이것은 본원의 목적이 전 조선에 보급되는 것으로, 도는 그 도의 사람을 교육하고, 군은 그 군의 사람을 양성하여 상호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³⁵⁾

대동사문회는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일단 학교의 명칭은 공자의 추존 시호인 ‘대성’에서 따왔고, 교육 장소를 경학원의 비천당으로 정했다. 과목의 종류와 시수의 정도를 알 수 없지만, 과학을 교과목에 포함하여 시대의 상황을 수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대동사문회회는 지방 향교와 연계하고, 이 결합체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것은 학제를 조직하는 과정에도 나타난다.

조선 시대에 縣마다 하나씩 향교를 두었다. 대동사문회는 이 방식을 응용하여 새롭게 바뀐 행정구역 232개 지역의 유림을 포섭하기 위해 일종의 ‘지역할당제’를 선택했다. 대성학원은 3개 학년으로 구성되며, 한 학년의 모집 정원이 100명이다. 한 학년의 학생을 모집할 때 일반지원으로 전체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행정구역 232개 지역에서 선공생이라 칭하는 학생을 각 지역당 1명씩 할당해서 뽑는다. 한 학년에는 대략 77개 지역의 학생을 한 명씩 선발하게 되는데, 다음 해와 그 다음 해가 되어 3개 학년이 이루어지면 232개 지역에서 한 명씩 대성학원에 재학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은 3년마다 한 명씩 대성학원 학생을 배출하게 된다.

대동사문회는 1921년 12월 17일 대성학원 기부금 모집 허가 신청서를

35) 「本報續刊辭」, 『대동사문회보』 제2호, 1922, 2쪽.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모집 금액은 65만 원으로 결정했다. 대성학원 설립을 처음 계획할 때는 대동사문회가 단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공부자 기신 40주갑 추모 예식을 경학원, 유도진흥회와 세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대성학원 창립도 유도진흥회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1922년 3월 4일에 열린 懇親會에서 대성학원 창립 專務委員으로 어운적, 위원은 閔丙燮, 송지현, 이해조로 정했고, 유도진흥회에서도 위원을 뽑기로 했다. 3월 10일 대성학원 기부금 모집 허가 신청서를 대동사문회 부회장 정만조와 총무 어운적, 유도진흥회 회장 朴箕陽과 총무 鄭鎭弘이 聯署로 제출했다. 이때 대동사문회가 단독으로 제출한 신청은 취소했고, 모집 금액도 6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낮추어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후 대성학원 기부금 모집 허가 신청서는 종로경찰서에서 경기도청으로, 다시 총독부로 상신되었다.

4월 25일 대성학원 기부금액을 당국 내부 조정해 의거하여 24만 2천원으로 축소했고, 5월 2일 대성학원 기부금 모집 허가가 결재되었다. 5월 3일 대성학원 기부금 모집 허가장을 경무국에서 도청으로 회부하고 동시에 각 도지사에게 통첩했으며, 5월 10일 어운적 총무가 종로경찰서에 출두하여 대성학원 기부금 허가장을 수령했다. 6월 8일 총독부 학무국장이 대성학원 성립 및 기부금 모집을 원조하는 일로 각 도지사에게 통첩했다.

대동사문회가 주도했던 대성학원 설립은 3개월 동안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을 위한 모집 금액이 6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다시 24만 원으로 축소되어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설립 신청을 한 뒤에도 종로경찰서, 총독, 경무국, 도청 등을 경유하면서 허가장을 수령하고 기부금 모집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행정적 난관도 여러 차례 겪게 된다. 대성학원 설립 시도가 언제 어떻게 끝이 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유럽에서 경학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1930년에 경학원 부설로 明倫學院이 설립되는데, 대동사문회의 대성학원 설립 시도가 명륜학원 설립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3·1운동에 놀란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는 기초를 바꾸기 시작하고, ‘문화통치’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보장했다. 이때 유림 단체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경성과 지방에서 다양한 유림 단체가 결성되었다. 본고는 문화통치기에 가장 먼저 결성된 친일 유림 단체 대동사문회를 연구하되, 이 단체의 결성과 참여 인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동사문회는 “儒道の 講明을 목적”으로 1920년 1월 25일에 창립된 친일 유림 단체이다. 대동사문회는 경성에 본회를 두었는데, 본회에는 경의부, 경현부, 사례부, 치사부, 전서부, 서무부를 두었다. 지방에는 지회를 두었는데, 典事가 會務를 담당했다. 창립 초기에 126개 군에 전사 563명을 두었으며, 지회 역시 52개를 인가했다.

대동사문회의 창립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상무이사 정만조, 홍공섭, 최영년, 어윤적, 박노학, 송지현, 이범철, 김정기 8인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일진회, 중추원, 대동학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상호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을 한곳에 모은 것은 漢詩文을 창작하는 문예활동을 통해서였다.

이들은 문예구락부, 이문회 등에서 문예활동을 펼쳤다. 특히 詩文書畫 擬科(大)會의 고시관에는 상무이사 8인 중 4인 곧 정만조, 최영년, 송지현, 어윤적이 참여하고, 기타 임원인 심종순(발기인, 강사), 이기(발기인, 이사), 윤희구(강사), 박이양(이사, 강사), 서상훈(이사, 강사), 이승현(평사장), 현채(발기인)도 참여했다. 이 고시관 활동이 대동사문회의 창립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사문회가 초기에 역점을 둔 사업은 현철을 숭상하고 鄉祠를 건설하기 위한 향교재산 환부 제안, 孔夫子 忌辰 40周甲 追慕式 거행,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과대학인 大成學院을 설립이었다. 유림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향교재산 환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호응이 높았으나 재산 형성과 사용의 일체 권한을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청 건은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경학원과 향교에서 교육 기능이 상실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대성학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했으나 이것 역시 막대한 자금을 모집하는 문제에 막혀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공부자 기신 40주갑 추모 행사를 경학원, 유도진흥회와 함께 추진하면서 유림의 존재와 역할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했다.

대동사문회는 위에서 말한 일련의 사업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주도함으로써 유림 사회의 주도권을 일정 정도 확보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많고, 이에 따라 주요 활동 기간도 5년 남짓 된다. 그럼에도 대동사문회는 일제에 부여한 유림 세력들이 활동했던 중추원, 대동학회(이후 공자교회), 문예 동호회인 以文會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친일 유림의 계보와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대동사문회의 설립과 조직, 초기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창립한 유교부식회 등 일제강점기 유림 단체 연구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논문투고일: 2024.03.08 / 심사완료일: 2024.03.25 / 게재확정일: 2024.03.29

<참고문헌>

『大東斯文會報』 제1호(1920.04.30.)

『大東斯文會報』 제2호(1922.10.24.)

강명관, 「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 『창작과비평』 62, 창작과비평사, 1988, 141~172쪽.

김명우, 「일제강점기 향교 直員과 掌議」, 『중앙사론』 25,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07, 129~130쪽.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 2014, 33~57쪽.

김윤희, 「대동합방문의 출판과 재판 그리고 전유 과정」, 『민족문화논총』 7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0, 5~38쪽.

김자운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119~120쪽.

鄭旭宰, 「한말·일제하 유림 연구: 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논문, 2009.

黃渭周, 「日帝强占期 以文會의 結成과 活動」, 『大東漢文學』 33, 대동한문학회, 2010, 243~285쪽.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Abstract

A Study on Daedongsamunhoe, a pro-Japanese Confucian group in
Japanese colonial era / Suh, Junghwa

urprised by the March 1st Movement, Japanese imperialism began to change the way of governing Korea. In the name of 'cultural rule', various cultural activities of Joseon were guaranteed. In particular, organization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newspapers and magazines became active. The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its efforts on making Confucian scholars into pro-Japanese groups as one of the ways to govern Joseon. As soon as Joseon was merged, Seonggyungwan was changed to Gyeonghakwon. In addition, various Confucian organizations were formed in Gyeongseong and other provinces by easing the standards for establishing Confucian organizations.

This paper studies Daedongsamunhoe, a pro-Japanese Confucian group activ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focuses on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activities of this group. Daedong Samunhoe was the first Confucian organization to be formed during the 'cultural rule' period. It was established in January 1920 and was active for approximately five years, but it is important in studying pro-Japanese Confucian organizations activ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though there are many Koreans who served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will also be meaningful in that it can track the genealogy and activities of pro-Japanese Confucian scholars in that the activities of Confucian scholars, who can be said to be among the highest-ranking, are closely linked to Daedonghaghoe(reformed into Gongjagyohoe) and Imunhoe, a literary club.

In addition, Daedongsamunhoe initially focused on the project of returning the property of Hyanggyo to honor sages and build shrines, establishing Daesunghakwon, a liberal arts university centered on Gyeonghak, and holding a memorial service to commemorate the 2400th anniversary of Confucius' death. This will help to see the whole of Confucian groups such as Yudojinheunghoe, Joseonyugyohoe, and Yugyobusighoe, who worked in Japanese colonial era.

Key words: Daedongsamunhoe, Daedongsamunhoebo, pro-Japanese Confucian group, Gyeonghakwon, Yudojinheunghoe.